



ETS, 국내 토플 수용 능력 7만명 확대

- 지필고사와 함께 혼합 시험장 방식 활용, 좌석수용능력 대폭 확대
- 한국 내 사무소 개설하고 시험 관련 업무 수행할 계획

2007년 4월 21일, 서울 - 미국 교육평가원(ETS)은 오늘 세계적 영어능력시험인 토플시험에 대한 국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시험 수용능력을 7만명 추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필고사 방식(PBT) 5만명과 인터넷 방식(iBT) 약 2만명의 수용 능력이 추가된다. 이는 ETS가 2007년 한국에서 시행하는 토플시험의 수용능력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금년 말까지 총 수용능력이 13만4천명으로 확대된다.

ETS의 폴 램지(Paul Ramsey) 수석부사장은 “ETS는 한국에서 토플시험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모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한 국가에 대해 시험 수용능력을 7만명이나 확대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이는 한국 토플시험 응시자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것을 ETS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다.

최근 국내 토플시험 응시수요의 폭증으로 ETS의 수용능력이 초과되고, 이 때문에 시험신청 웹 사이트에 막대한 트래픽이 집중돼 국내 응시자들이 시험신청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당시 ETS 웹 사이트는 한국의 응시자만으로도 하루에 3천2백만 건의 히트 수를 기록했고, 시험신청은 매우 짧은 시간에 마감됐다.

램지 수석부사장은 “신청과정에서 응시자들이 겪은 불편에 대해 사과 드린다”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 대안과 장기적 대안을 망라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기적인 조치로 ETS는 올해 말까지 총 5회의 지필고사 방식 토플시험에 대한 수용능력을 5만명 추가할 계획이며, 토플 iBT 시험은 현 39회에서 6회를 추가해 올해 안에 총 45회로 늘린다.

또한, 4년제 및 2년제 대학, ETS의 IT 파트너사인 프로메트릭 (Prometric) 및 ETS 공인 시험장 등 혼합 시험장 방식을 추진함으로써, 토플 iBT 시험의 수용능력을 증가시킨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2007년 내에 토플 iBT 시험의 수용능력이 적어도 2만명 이상 추가될 예정이다.

ETS는 전세계 대학은 앞으로도 계속 지필고사(PBT), 컴퓨터(CBT), 인터넷(iBT), 세가지 시험방식을 동일하게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혼합 시험장 방식은 지금까지 토플시험이 시행되던 4년제 대학 외에도 시험장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대규모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ETS는 한국에서의 시험 제공 방식과 응시자들에게 시험수용능력을 통보하는 방법을 재조정하고 있다. ETS는 자사의 웹사이트에 한국어 페이지를 오픈함으로써 국내 응시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좌석이 확보되는대로 바로 신청이 가능한 현재 방식에서, 적어도 2천5백석의 좌석이 확보될 경우에만 신청을 받게된다.



한국어 웹사이트를 통해 최소한 72시간 전에 확보된 좌석의 신청이 가능한 날짜 및 시간을 통보하게 된다. 한국어 웹사이트는 RSS 피드를 적용해 응시자들이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ETS는 국내 응시자의 시험등록을 처리하기 위해 전용 서버를 국내에 설치하는 한편, 대표 사무소를 설립해 국내 응시자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혼합 시험장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내 시험수용 능력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을 전망이다.

램지 수석 부사장은, “혼합 시험장 방식은 ETS가 여러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 모델이다. 하지만, 토플시험이 갖는 학문적인 특성상 대학에서만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하에 한국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ETS와 여러 교육 단체들은 국내 응시수요가 시험수용능력을 초과했다는 것을 함께 인식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스템이 국내 토플시험 응시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도와줄 것이라 믿고 있다.”고 전했다.

###

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 관해

ETS는 전세계인에게 공정하고 효과적인 평가, 연구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교육의 질과 형평성 향상을 사명으로 하는 비영리기관이다. ETS는 전세계의 개인, 교육기관, 정부 부처 등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교사 전문성 개발 상품과 서비스, 교실평가 및 과정 후 평가, 연구 기반 교육 및 학습 도구 등에 대한 니즈를 충족하기 위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1947년에 창립된 ETS는 매년 전세계 180개국, 9,000개 이상의 시설에서 2,400만 건 이상의 시험을 개발 및 시행하고,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웹 사이트(www.et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iBT 토플에 관해

iBT 토플은 실제 대학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여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한다. 10년에 걸친 연구, 개발 및 테스트를 토대로 개발된 iBT 토플은 영어의 학습 및 평가 방식을 다시 정의하는 시스템이다. iBT 토플은 수험자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등 4가지 언어능력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최초의 대규모 인터넷 기반 영어능력평가 시스템이다. iBT 토플은 또한 교육평가의 전 부문에서 전세계적 리더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ETS의 발자취와 명성을 토대로 공정, 공평하고 객관적인 채점을 실시하는 기준도 설정하게 된다. 참고로, 전세계 110개국, 6천 개 이상의 대학이 입학 지원자의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TOEFL 점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www.ets.org/toef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문의:

에델만 코리아 박진희 2022-8256 / 011-553-1372 / jinhee.park@edelman.com